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백양사 · 남창지구) 고객접점에서의

# 탐방 서비스 매뉴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 목 차

1. 국립공원 일반 및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개
2.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3. 공원내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기준
4. 탐방코스
5. 자연해설시나리오
6. 교통편 안내
7. 상황 및 고객성향에 따른 응대요령
8.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예절
9.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

# 1. 국립공원 일반 및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현황

## 1) 국립공원의 개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1967년 지리산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 육상면적의 3.7%가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문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1987년 설립되었으며,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세계 인류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라산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 국립공원지정현황 : 6,579.85km<sup>2</sup> (육상 : 3,898.948/ 해상 : 2,680.902)

면적단위 : km<sup>2</sup>

지정 순위	공원명	위 치	공 원 구 역		비 고
			년 월 일	면 적	
계				6,579.848	
1	지 리 산	경남, 전남·북	' 67.12.29.	471.758	
2	경 주	경북	' 68.12.31.	138.715	
3	계 룡 산	충남, 대전	' 68.12.31.	64.683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 68.12.31.	545.627	해상 385.479
5	설 약 산	강원	' 70.03.24.	398.539	
6	속 리 산	충북, 경북	' 70.03.24.	274.541	
7	한 라 산	제주	' 70.03.24.	153.386	
<b>8</b>	<b>내 장 산</b>	<b>전남·북</b>	<b>' 71.11.17.</b>	<b>81.715</b>	
9	가 야 산	경남·북	' 72.10.13.	77.074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 75.02.01.	231.650	
11	오 대 산	강원	' 75.02.01.	303.929	
12	주 왕 산	경북	' 76.03.30.	107.425	
13	태안해안	충남	' 78.10.20.	326.574	해상 289.543
14	다도해해상	전남	' 81.12.23.	2,321.510	해상 1,986.684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 83.04.02.	79.916	
16	치 약 산	강원	' 84.12.31.	181.631	
17	월 약 산	충북, 경북	' 84.12.31.	287.977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 87.12.14.	322.383	
19	변산반도	전북	' 88.06.11	154.715	해상 9.196
20	월출산	전남	' 88.06.11.	56.100	

○ 도립공원 : 24개소 788.524km<sup>2</sup>

○ 군립공원 : 33개소 441.260km<sup>2</sup>

### 3)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개

#### 가. 백양사 · 남창지구 개요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 남창지구는 중생대 백악기인 6천 6백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여 응기된 산지로서 산성화산암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600~800m의 백암산 및 입암산 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봉우리는 백학봉, 상왕봉, 갯바위 등이 있으며, 봄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닮은 아기 단풍이 신록의 모습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수가 흘러가면서 만들어 내는 시원한 물소리가 있는 모습으로, 가을에는 아기단풍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이 뒤덮인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백학봉의 장엄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호남 금강산'이라 불립니다.

#### 나. 백양사 · 남창지구 사계절

봄 - 원래 춘(春)백양 추(秋)내장이라 할 만큼 봄의 신록과 진입도로변 벚꽃길은 가족이나 연인들 나들이 코스로 좋은 구간입니다.

여름 - 여름철 남창계곡은 시원하고 깨끗해 탐방객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가을 - 백양사 지구 가을은 작은 단풍잎, 일명 아기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오는 곳입니다.

겨울 - 푸른 비자림과 낙엽진 단풍나무에 쌓인 하얀 설화는 백학봉 설경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 다. 위치 및 면적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시 내장산(내장산지구), 전남 장성군 박하면 백암산(백양사지구), 전남 장성군 입암산(남창지구) 3개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백양사 · 남창지구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전체 총 면적 81.715km<sup>2</sup>(2007년 기준) 중 34.211km<sup>2</sup>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개 국립공원 중 8번째로 지정(1971.11.17)되었습니다.

#### 라. 기온 및 강수량

공원지역 평균기온은 12.8℃로, 최저기온은 1월에 -5.2℃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1,283mm, 계절적으로 연 강수량 50~60%가 여름에 내리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 2.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1) 주차장

가. 정액요금

(단위 : 원)

시설명칭	차종	사 용 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 차 장	1. 승용차			
	· 1,000cc미만	2,000	2,000	경형
	· 1,000cc이상	4,000	5,000	소형
	2. 버스			
	· 마이크로버스	4,500	5,500	중형
	· 비정기버스	6,000	7,500	대형
	3. 화물차			
· 4톤미만	3,000	4,000		
· 4톤이상	6,000	7,500	대형	

나. 야영장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소형텐트(3인이하)	3,000	3,500	1일 1개동기준
중형텐트(4~10인)	4,500	5,500	
대형텐트(10인이상)	6,000	7,500	

다. 영리목적 촬영

(1) 사진촬영

(단위 : 원)

시설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사진촬영	1년	600,000	1인기준

(2) 영화, TV드라마, C·F, VTR촬영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영화, TV드라마, C·F(광고)촬영	120,000	1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징수
VTR촬영	60,000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추가징수

### 3. 공원내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법적근거	과태료			비고
		100	150	200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자	자연공원법제24조의3	100	150	200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연공원법제24조의4	100	150	200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5호	100	150	200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6호	50	50	50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7호	10	10	10	
지정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8호	10	10	10	
오물을 도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9호	10	10	10	
공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 주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령제25조	10	10	10	
특별보호구를 출입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50	50	50	
산불방지기간에 통제탐방로(등산로)출입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50	50	50	
국립공원내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 탐방로 및 산림내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50	50	50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50	50	50	
국립공원내에서 사행위와 유사한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호	20	40	60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호	20	40	60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호	20	40	60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4호	20	40	60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5호	20	40	60	
자연생태계를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하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6호	20	40	60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자연공원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7호	50	100	150	

# 4. 탐방코스

## 1) 탐방안내도

#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도

(백양사, 남창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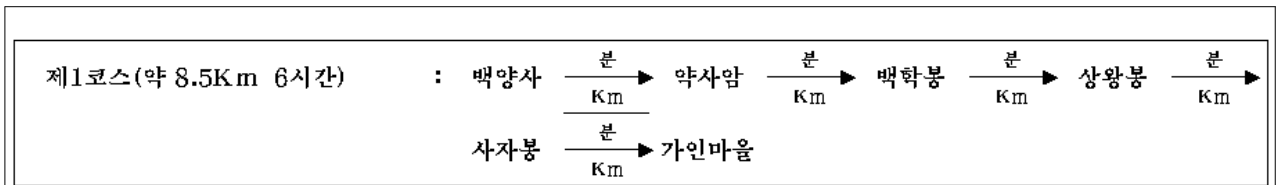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  
 Tel : 061-392-7288(백암사무소)  
 061-393-3088(남창주차매표소)



## 2) 주요탐방코스 안내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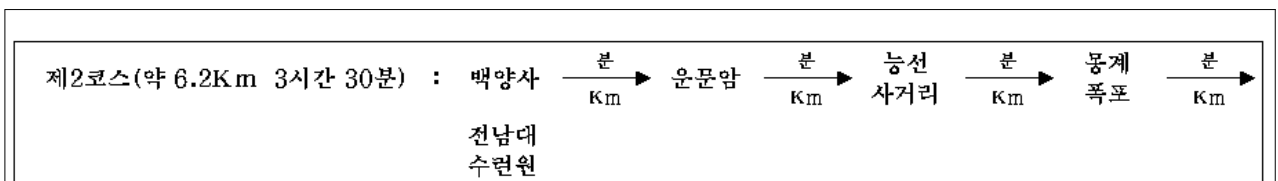
### 가. 6시간 코스



백양사에서 가파른 탐방로를 20여분 올라가면 약사암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지나면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영천굴이 있으나 탐방로 초입부에 위치하고 백양사에서 가파른 탐방로를 20여분 올라가면 약사암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지나면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영천굴이 있으나 탐방로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리 식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길이 가파르고 험한 계단을 오르다 보면 백암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전망대인 학바위와 백학봉을 지나 백학봉과 상왕봉 구간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간의 길은 능선을 따라가게 되어 비교적 편합니다. 상왕봉에서 백암산과 입암산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나. 3시간 30분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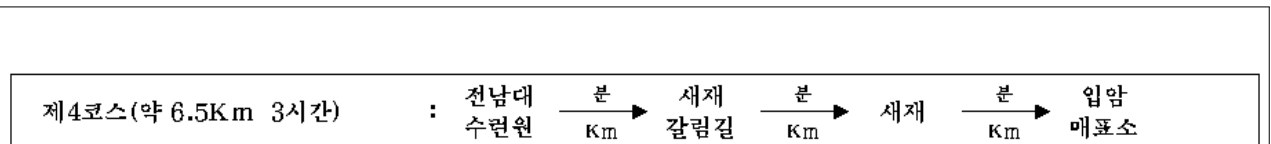
여름철 시원한 폭포를 보기위해 많은 이가 찾는 코스입니다. 남창주차장에서 전대수련원을 지나 조금 올라가다보면 시인마을이 보이며, 그 옆으로 하여 몽계폭포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행 난이도는 공원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 정도입니다. 이 코스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산행을 시작하기전에 남창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식수를 구할 수가 없으므로 산행이전에 식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몽계폭포를 보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으며, 몽계폭포, 능선사거리, 운문암을 거쳐 백양사로 내려오는 코스도 선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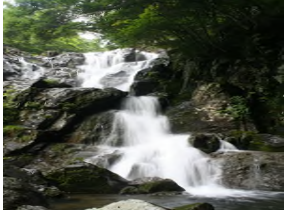
## 다. 4시간 코스



이 코스는 입암산을 탐방하는 코스로써 남창지구의 대표적인 코스입니다. 버스가 일 3회 운행되고 있기에,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 주변에는 별도의 숙박시설이 없기에 백양사지구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탐방로 전체적인 산행은 무난하게 할 수 있으며, 난이도는 중 정도입니다. 전남대학교수련원을 지나 새재갈림길에 이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남문 방향으로 향합니다. 남문을 지나 평탄하게 이어진 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북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파른 길을 20여분 정도 오르다보면 입암산의 정상인 갯바위에 이릅니다. 여기서 능선길을 따라 은선동계곡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이며 거리는 10.7km입니다. 이 코스에는 초입부에 있는 주차장 주변의 화장실과 새재 화장실이 있으며, 탐방로 상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산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두 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마찬가지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선동계곡은 신선이 숨어서 살았다는 뜻의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계곡이며, 여름철 이 곳을 찾았을 때는 계곡물에 비치는 녹색의 나무 잎이 그 아름다움을 한껏 더 뽐내고 있습니다. 갯 모양을 닮았다는 갯바위는 입암산의 정상으로써, 사방이 트여 있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변의 경관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전북 고창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 라. 3시간 코스



백학봉	약사암	갯바위	몽계폭포
			
백암산에서 뿔어 내린 백학봉은 해발 722m의 거대한 바위봉으로 형태가 '백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백학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백학봉에서는 백양사와 일대 계곡의 단풍이 한눈에 내려 다 보인다.	백암산 학바위 중턱에 있는 약사암은 백양사의 유래와 관련이 깊다. 조선선조때 흰양이 환양선사의 설법을 듣고 천국으로 간 전설에 따라 백양사라는 이름이 생겼고 전망 또한 좋아 백양사 지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마치 갯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이 유래 되었습니다. 장성갈재에서 왼편 산정의 암봉을 올려다보면 초립(갯)을 쓴 모양이 뚜렷이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서해바다도 보인다.	백암산 상왕봉으로 부터 이어지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울창한 숲속의 폭포의 맑은 물이 시원해 보인다. 산속 깊숙히 자리 잡아 일명 숨은 폭포라고도 불린다.

### 3) 비지정탐방로(샛길)현황

- 노령터널 - 시루봉 - 갯바위(샛길)
- 백양관광호텔 - 가인봉(샛길)
- 백학봉 - 곡두재(호남정맥구간)

### 4) 탐방코스에 관한 Q&A!!

Q) 가벼운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탐방코스 난이도)

가벼운 산책을 생각하신다면 쌍계루나 백양사까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며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정도로 평탄한 코스입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약사암 이나 천진암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쌍계루에서 30분 정도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시면 약사암에 이르는 데, 백양사가 한눈에 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천진암은 쌍계루에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탐방객들이 많이 찾지 않아 매우 조용한 코스입니다.

Q) 산행 중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코스에 화장실도 있는지요?

<h2>식수, 화장실 현황 표</h2>
-----------------------

**Q) 내장산종주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코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백양사에서 가파른 탐방로를 20여분 올라가면 약사암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지나면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영천굴이 있으나 탐방로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리 식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양사에서 약사암과 영천굴을 지나 가파르고 험한 계단을 오르다 보면 백암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학바위와 백학봉에 이르고, 이후 능선을 따라 상왕봉 정상 약10m전에서 까지 가서 우측으로 진행하면 순창새재로 향하게 되는 길을 만나게 되며 여기서 2시간여 남짓 가다보면 까치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2.4km정도 가면 내장사가 나옵니다

**Q) 상왕봉에서 곡두재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갈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곳은 호남정맥의 일부 구간으로 우리 공원에서는 출입이 금지된 비지정 탐방로입니다. 따라서 상왕봉 방향에서 오실 때에는 구암사 방향으로 내려가시거나, 백학봉을 거쳐 약사암 방향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지정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금지구간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셋길을 통제하는 사유와 출입시 처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립공원내 비지정탐방로(셋길) 출입통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에 의거하여 2002년 2월에 신문보도, 공원별·공단본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적법하게 법적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Q) 등산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탐방로 주요지점(250~500m 간격)에 설치된 다목적위치표지판의 신고처에 현위치 번호와 현장 상황을 신고하시면 - 119나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061-392-7088) -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 사무소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사고상황(현위치, 다친정도 파악 등), 인적사항(연락처, 이름, 성별 등), 신고 접수 시간 등을 받아 적어 놓고, 안전·구조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Q: 산행시 유의할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 산행을 하시기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 탐방 후 자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야하며,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나 비자열매 등을 가져가시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산행 중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시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셔야 하며, 탐방로 상에서 비박 및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5) 입장 및 입산금지에 관한 Q&A!!

### Q) 입장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등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해가 오전 7시에 뜨면, 입장은 오전 5시부터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만약 오후 7시에 진다면, 입장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산행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국립공원내의 야생 동·식물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산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전 탐방로가 당일내에 산행이 가능합니다. 야간산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애완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은 애완동물이 지니고 있는 병원균에 대해 예방 접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병원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장산국립공원 생태계 전체에 교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공원법에서는 제29조에 의거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한하여 가능)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난 문화재에는 관심이 없고, 등산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입장료를 내야 하나요?

그동안 국립공원에서 징수하던 국립공원입장료는 새로운 공원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공원입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는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로써 이는 사찰 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키 위해 해당 사찰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로 인한 탐방객의 불편 사항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으나 관련부처와 조계종 등 각 기관간의 입장차이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탐방객의 불편들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문화재

관람료 관련한 불편을 겪으셨다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양사 061-392-7502)

Q) 입산이 통제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산불조심 통제기간 관련)

Q) 산불조심기간에 통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Q) 은선골에 사진촬영을 가려 합니다. 갈 수 있나요?(계곡휴식년제 관련)

## 5. 자연해설시나리오

### 1) 남창골 시나리오

		
재미있는 자연놀이	수서곤충 관찰해보기	백양사 역사 알아보기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약 0.39km, 1시간 30분) : 일광정 - 쌍계루  
 - 내 용 : 내장산국립공원의 비자향을 온 몸 가득 맡으며 갈참나무할아버지와 함께 백양골과

곡두재의 야생화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자연해설** (약 0.8km, 1시간 30분)

: 전남대수련원 - 새재화장실 - 전남대수련원

- 내 용 : 남창계곡에 사는 물 속 친구들과 함께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 **자연과 함께 걷는 길 코스** (약 1km, 1시간) : 백양시인마을 - 일광정

- 내 용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단풍나무 숲 길을 걸으면서 포인 트식의 해설로 이루어지며 내장산국립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1시간) : 백양사 경내
  - 내 용 : 천년고찰 백양사와 사찰문화(사천왕문/대웅전)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입니다.
- **입암산 탐방가이드** : 5월~9월, 입암산일원, 당일형
  - 내 용 : 입암산 트레킹을 통하여 역사, 문화자연해설과 함께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입암산성을 소개하고 역사인물인 송군비, 윤진장군의 나라사랑을 배웁니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공감대 형성	국립공원 소개 및 탐방시 주의 사항
인사 및 공원소개	<p>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으로 진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창골 자연해설을 하게 될 내장산백암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입니다.</p> <p>국립공원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나무와 풀, 하늘을 나는 새, 계곡에 있는 물고기와 숲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야생동물을 포함한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국민과 후손들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p> <p>그런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여러분도 자연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가고 공원 내에서 흡연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겠습니다.</p>
지명유래	<p>입암산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입암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문헌상으로는 1236년 몽골의 제3차 침입 때 장군 송군비(宋君斐)가 수축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개축되었습니다. 남창은 산성 남쪽에 있는 창고라 하여 남창이라 부르고 현재 전남대학교 수련원이 옛 창고 터입니다.</p>
2. 삼나무 조림지	어울리는 것 같지만 남다른 나무
삼나무	<p>원산지는 일본으로 분포지역은 한국(남부지방), 일본입니다. 6.25전쟁 후 남부지역 산을 녹색으로 가꾸기 위해 많이 심었습니다. 삼나무 낙엽은 2~3년, 주목은 8~10년, 소나무는 2~3년 마다 떨어집니다.</p>
3. 예덕나무	짙바람 불어오는 길목에 선 예덕나무
예덕나무	<p>주로 난/온대 기후대 해안가나 숲 가장자리에 자생하는 것으로, 한국·일본·중국에 분포합니다. 백양사에서는 찾아 보가 어려운 수종으로 남창까지 서해안 바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사위질빵	자식을 향한 부모님 내리 사랑
사위질빵	<p>질빵풀이라고도 하며 산과 들에서 흔히 자랍니다. 사위질빵은 씨앗에 솜털이 붙어 바람에 날려서 번식 할 수 있습니다.</p> <p>사위질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가 있는데 옛날부터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듯이 처가집에 가면 사위는 의례껏 극진한 대접과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전 일부 지방에서는 가을이 되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사위가 처가집에 가서 가을걷이를 돕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사위에게 일을 시키는 장인과 장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꾼들보다 유난히 짐을 적게 실어 지게질을 하게 하자 함께 일하던 농부들이 반은 불평으로 반은 부러움으로, “약해빠진 이 식물의 줄기로 지게의 질빵을 만들어 저도 끊어지지 않겠다.” 며 놀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덩굴식물의 이름은 사위질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따뜻한 이야기인 듯합니다.</p>
5. 때죽나무	나무 이름 전설도 다양한 때죽나무
때죽나무	<p>때죽나무는 계곡을 따라 잘 성장하므로 생장범위가 넓습니다. 열매는 물에 풀어서 비누 대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꽃은 향기가 좋아서 향수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특이한 이름만큼 모양과 쓰임새에서 붙여진 이유도 분분합니다. 검은 수피 때문에 ‘때가 많은 껍질 나무’ 라는 설과 조롱조롱 매달린 녹색 반들거리는 열매가 스님들이 때로 모여 있는 모습과 같아서 불렀다는 설, 열매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열매에 에고사포닌이라는 독성으로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았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때로 죽는다고 하여 때죽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꽃 모양이 은총 같아서인지 Snowbell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p>
6. 돌담	돌 틈에 살아가는 동물
돌담	<p>뱀, 다람쥐 등 여러 동물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국립공원에 어울리는 시설로 야생동물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p> <p>남창골 자연관찰로는 생명의 숲에서 훼손된 숲을 복원하고 올바른 숲 탐방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복원기금(녹색자금)을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고로쇠 나무	고로쇠 수액을 마시면 뼈가 튼튼해질까요?
고로쇠나무	<p>산지 숲속에서 자라고 한국(전라남도·경상남도·강원도)·일본·사할린섬·등지에 분포합니다.</p> <p>고로쇠나무는 예전에는 "골리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통일 신라 말에 도선 국사가 백운산에서 오랜 참선 끝에 일어섰다 하였으나 너무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곁에 있는 나무를 잡고 일어서다가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받아먹고 곧장 무릎이 펴졌다하여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의미의 골리수(骨利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또한 삼국시대에 적군에 쫓긴 백제 병사들이 백운산을 넘어 목말라 하던 중에 고로쇠 나무에서 흐르는 약수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여 적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p> <p>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나무에 대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로쇠 물은 도토리나 같이 우리가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데 구태어 나무를 학대하고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채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태 파괴를 하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p>
8. 우량경보기	안전을 지켜주는 자동우량경보기
자동우량경보시설	<p>1996년 지리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계기로 전국 산간계곡, 하천 유원지 등 인명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강우량, 하천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대피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상이변이나 국지성호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면 자동으로 측정 한 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하류지역 스피커를 통해 대피명령을 내리게 되어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심하고 계곡주변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p>
9. 덩굴식물	나무 보다 더 크게 자라는 식물
덩굴식물	<p>줄기가 곧게 서지 않고 지면을 기거나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가지나 잎이 변형된 덩굴손으로 다른 식물을 휘감는 종류(포도, 머루, 종덩굴, 개버무리, 큰꽃으아리 등), 기근이나 흡착근으로 다른 식물에 붙어 자라는 종류(담쟁이, 바위국수, 덩굴웃나무, 능소화, 줄사철 등), 가지로 다른 식물에 의지하며 자라는 종류(인동, 청사초롱 등), 덩굴 생장점이 다른 식물의 줄기를 감아 돌면서 자라는 종류(취, 등, 노박덩굴, 새콩 등)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감는 것으로는 취, 등, 인동, 더덕, 덩굴용담, 흑오미자 등이 있고, 왼쪽으로 감는 것은 땀덩굴, 으름, 개다래, 참마, 노박덩굴, 새콩 등이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배롱나무	꽃을 오래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배롱나무	<p>꽃이 100일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하며,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지름나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파양수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lt;군방보&gt;라는 책에는 “매끄러운 줄기를 긁어주면 모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간지름을 타기 때문에 파양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간지름나무’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저금 타는 낭’이라고 부른다. 배롱나무 전설에는 옛날 어느 어촌에 목이 세 개 달린 이무기가 나타나 매년 처녀 한명씩을 제물로 받아갔습니다. 그해에 한 장사가 나타나서 제물로 선정된 처녀 대신 그녀의 옷으로 갈아 입고 제단에 앉아 있다가 이무기가 나타나자 칼로 이무기의 목 두 개를 베었습니다. 처녀는 기뻐하며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사오니 죽을 때까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하자, "아직은 이르요. 이무기의 남은 목 하나도 마저 베어야 하요. 내가 성공을 하면 흰 깃발을 달고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달 것이니 그리 아시오."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처녀는 백일 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일 후, 멀리 배가 오는 것을 보니 붉은 깃발이 걸려 오는 것을 보고 그만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장사는 이무기가 죽을 때 뽑은 피가 깃발에 묻은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후 처녀의 무덤에서는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백일 간 기도를 드린 정성의 꽃, 백일홍입니다. 꽃은 지혈·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월경과다·장염·설사 등에 약으로 사용합니다.</p>
11. 하나 된 나무	둘이 모여 하나로 살아가는 나무
연리지 현상	<p>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합니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한 나무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서로 나눠 갖다보니 약한 나무가 죽거나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이죠. 한몸이 되어서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연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꽃이 그대로 피어납니다. 일단 한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이연리지 현상을 보면서 나무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 숲	바닥에 뿌려진 숯가루
숯 가마터	<p>남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숯가마 모양은 동그란 돛 형식으로 자전거 바퀴를 이어 붙여 지붕을 만들고 나무를 썬다 숯을 만들었습니다. 숯가마하고 바로 목욕하지 말라는 이유가 높은 온도의 장소에 장시간 머물러 있으면, 몸 안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심할 경우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우면 체온조절을 하기 위해 땀이 나는데 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흘리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피부 미용이나 건강에 모두 안 좋습니다. 숯가마에 들어가기 전 목욕을 하면, 모공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어 찜질중 수분배출이 더 많아지며, 목욕하는 도중에도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숯가마에서 나온 후에 목욕을 하게 되면, 땀을 닦는 정도로 가볍게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오래도록 목욕을 하게 되면, 수분배출이 더욱 많아집니다.</p>
13. 움직이는 돌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는 돌들
너덜지대	<p>이렇게 보이는 형상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너덜”이나 “너덜-경”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너덜너덜’이란 말은 들어 보셨겠지만 그때 너덜너덜은 종이나 형겔 여러 조각이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돌이 많이 깔린 비탈을 너덜이라고 합니다. 너덜은 너덜-경의 준말입니다. 이러한 너덜지대는 아주 오랜 옛날 높은 산 위에 있던 바위가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 동안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지내면서 온도 차이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부서진 후 경사방향을 따라 산 아래로 굴러 떨어져 형성된 바위 비탈을 이르는 말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 한지	오랜 세월을 견디는 종이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	<p>독일의 쿠텐베르크 성서가 겨우 5백년의 수명을 가지고 열람조차 불가능한 어두운 상태에서 모셔져 있는 반면에 1천년에서 수백년 묵은 우리의 옛날 서적들이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쌓여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천년세월을 견뎌낸 우리의 종이, 썩지도 않는 우리의 한지, 그래서 살아 숨쉬는 종이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한지도 알고 보면 이 땅에서 자라는 질 좋은 닥나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옛날 책에 나와 있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절에서 쓸 종이를 마련하기 위해 닥나무를 재배할 때는 그 나무뿌리에 향수를 뿌리며 깨끗하게 가꾸고 그것이 자라면 껍질을 벗겨 삶아 찢어 만든다.’ 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국의 한지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지공장도 동남아산 닥나무 껍질을 수입하여 쓴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의 우수한 한지를 만드는 원료인 닥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닥나무는 그리 높지 않은 우리 산과 하천 어느 곳에서나 자랄 수 있고 가을이면 잎을 떨구며 여러해 동안 매년 줄기를 잘라내어도 계속하여 새 줄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나무랍니다. 또한, 닥나무는 추위에 비교적 강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양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한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이 지난 줄기를 사용하고 옮겨심은 후 5-7년 지난 줄기들에서 가장 많은 섬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잎이 모두 떨어진 겨울철에 나무를 잘라서 줄기의 껍질만을 한지를 만드는데 사용한답니다. 오늘날도 전통 한지를 뜨는 지장들은 닥나무를 딱나무로 부르기도 해요. 딱나무라는 이름은 닥나무의 가지를 꺾으면 “딱” 소리를 내기 때문에 죽을 때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죽는 나무라는 별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닥나무가 필요할까요? 10kg짜리 생닥나무의 줄기를 벗겨서 그늘에 말리면 2kg의 검은 껍질을 얻을 수 있고 이 검은 껍질을 삶고 말리고, 씻은 후 건조하여 얻는 하얀 껍질의 양은 1kg이에요. 하얀 껍질 1kg에서 5장의 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생 닥나무 줄기 2kg마다 한지 1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옛날 얼마나 종이가 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p>
15. 고사목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사목	<p>나무는 살아서도 많은 생물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죽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곤충들 먹이와 집,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난 나무 이야기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생명의 신비에 대해 느끼게 해 줍니다. 보기 좋게 정리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지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6. 멧돼지	천적이 없어요
---------	---------

멧돼지	<p>쭙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야산으로 내려오지만 깊은 산, 특히 활엽수가 우거진 곳에서 생활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서 부상을 당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반격하는데, 송곳니는 질긴 나무뿌리를 자르거나 싸울 때 큰 무기가 됩니다. 본래 초식동물이었지만 토끼·들쥐 등 작은 짐승부터 어류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먹는 잡식성동물로 변화하였습니다. 300미터 이상의 산에는 멧돼지가 거의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이 틀 무렵과 다시 해가 질 무렵이면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포유동물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 멧돼지는 계속해서 그 수를 늘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멧돼지의 생명력입니다.</p>
-----	--

17. 갈무리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소감나누기
---------	---------------------

마무리	<p>자, 여러분 출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걸 기억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딱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전보다 앞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면 저는 무엇보다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가실거죠?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이었습니다. 남은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p>
-----	---

## 2)백양사시나리오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공감대 형성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인사 및 일정소개	<p>여러분 안녕하세요(탐방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며).</p> <p>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장산국립공원을 소개할 백암사무소의 000입니다. 이렇게 저희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를 건너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거예요 그만큼 사찰에 가기위해서는 무척 힘이 든답니다.</p> <p>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사찰 경내를 돌면서 불교역사와 우리선조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국립공원 소개	<p>우선 사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립공원에 오셨으니 국립공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p> <p>국립공원이란 국토내의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관리 하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 보셨나요? (참가자들이 머뭇거릴 때는 힌트를 주어 대답을 유도 한다)</p> <p>이곳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 17일 8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 정읍순창의 내장산과 전남 장성의 백암산, 그리고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p>
2. 쌍계루	조상의 일이 묻어있는 쌍계루
이름의 유래와 조상들의 숨결	<p>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 옆에있는 것이 쌍계루입니다.</p> <p>이 누각은 1370년에 붕괴된 이후 1377년에 복구되었으며 이 과정에 정도전, 이색 등이 기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1381년에 작성된 이색의 '백암산정토사쌍계루기'에 따르면 이 곳에서 두 계곡의 물이 합쳐지므로 '쌍계루'라 이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쌍계루는 조선팔도 비경중의 하나였고 노산 이은상이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시을 읊었던 곳입니다.</p> <p>우리나라의 건축물을 서양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뭐죠? 다른건 없어요 단지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랍니다.</p> <p>조선시대 문신이 손수효 라는 분이 이런글을 남겼다고해요</p> <p>“ 누가 비어있으면 능히 만가지 경관을 끌어들일수 있을 것이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능히 선한 것을 많이 담을 것이다”</p> <p>이말에서 주가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p> <p>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는가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백양사 사찰 소개	명칭의 유래
백양사의 유래	<p>일반적으로 통하는 백양사의 유래는 백제 무왕때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명찰로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고, 1034년 중연선사가 크게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 선조때 환양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법회가 3일째 되던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법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려지고 있습니다.</p>
4. 부도탑	스님들의 부덤인 부도군,
스님들의 부덤	<p>여러분 부도와 탑의 차이점을 아세요?(참여유도/의견정리)</p> <p>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한 것이고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것입니다. 스님이 열반에 드시면 다비식을 통해 그분의 사리를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그 다비식을 통해 나온 사리를 보관한 부도와 비가 있다하여 부도군 이라 부르는 곳입니다.</p>
소요대사와 서용스님의 부도 이야기	<p>이곳 부도군에는 2003년 우리시대의 최고의 선승으로 존경받으신 서용스님의 사리도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보물이 한 점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부도가 소요대사 부도로 보물13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요대사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산대사의 제자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사명대사와 사형제지간이었던 분으로 담양에서 태어나 이곳 백양사에서 출가하였고 호남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스님입니다. 이분의 사리는 이곳 백양사 외에도 담양용추사와 구례 연곡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일광정 들어오는 입구 못미쳐서 좌측에 부도군을 새로 조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극락교	극락으로 가는길
극락교에 사는 용	<p>불교의세계관에 따라 산지가람을 조성할 때 남섬부주에서 수미산으로 들어가 기위해 9산8해를 넘어야 수미산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넘고 물건너 바다건너서죠 실질적으로 8개의 다리를 만들수가없으니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다리라도 만드는겁니다.</p> <p>이곳처럼 물이 흐르지않는 곳은 일부러 물길을 내고 다리를 놓기도 하죠</p> <p>이곳 극락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아무런 고통과 근심없는 불보살의세계. 피안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p> <p>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발밑에는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p> <p>이 용은 아홉 마리 용중에서 물을 좋아해서 다리의 기둥에 세우는데 이곳에는 다리 밑에 있습니다. 용의 이름은 공하 라고합니다.</p> <p>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다리난간에서 한번보세요 어떠세요? 경치가 좋죠? 좀전에도 말했듯이 계류위에 다리는 불교관의 세계로볼때 성과속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p>
6. 이뿃고	화두에 대하여
부모미생전	<p>이뿃고는 불교에서 던지는 화두입니다.</p> <p>화두는 선종사상에서 나온겁니다. 교종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공부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이고 선종은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입니다. 즉 교종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경전이요 선종에서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참선인 것입니다.</p> <p>여러분 이뿃고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부모미생전이란 말로 함축할수 있으며 부모님에게 태어나기전 과연 나는 무엇이였을까라는 화두를 깨우치는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화두를 정해 깨우치시고 득도하셔서 극락에 가지길 바랍니다.</p>
7. 사천왕문	수미산 중턱을 지키는 신
고불총림 백양사	<p>백양사의 사천왕문은 단위 경관의 결정점에 위치한 실질적 문의 역할 즉 입구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위를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불총림 백양사 라고 적혀있죠?</p> <p>여기에서 총림이란 말은 아무절이나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p> <p>총림이 되기위해서는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 염불을 공부하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극락교	극락으로 가는길
극락교에 사는 용	<p>불교의세계관에 따라 산지가람을 조성할 때 남섬부주에서 수미산으로 들어가 기위해 9산8해를 넘어야 수미산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넘고 물건너 바다건너서죠 실질적으로 8개의 다리를 만들수가없으니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다리라도 만드는겁니다.</p> <p>이곳처럼 물이 흐르지않는 곳은 일부러 물길을 내고 다리를 놓기도 하죠</p> <p>이곳 극락교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아무런 고통과 근심없는 불보살의세계. 피안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p> <p>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발밑에는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p> <p>이 용은 아홉 마리 용중에서 물을 좋아해서 다리의 기둥에 세우는데 이곳에는 다리 밑에 있습니다. 용의 이름은 공하 라고합니다.</p> <p>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다리난간에서 한번보세요 어떠세요? 경치가 좋죠? 좀전에도 말했듯이 계류위에 다리는 불교관의 세계로볼때 성과속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있습니다.</p>
6. 이뿔고	화두에 대하여
부모미생전	<p>이뿔고는 불교에서 던지는 화두입니다.</p> <p>화두는 선종사상에서 나온겁니다. 교종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적힌 경전을 공부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이고 선종은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고요히하여 깨달음에 이르려는 종파입니다. 즉 교종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경전이요 선종에서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는 참선인 것입니다.</p> <p>여러분 이뿔고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부모미생전이란 말로 함축할수 있으며 부모님에게 태어나기전 과연 나는 무엇이였을까라는 화두를 깨우치는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화두를 정해 깨우치시고 득도하셔서 극락에 가지길 바랍니다.</p>
7. 사천왕문	수미산 중턱을 지키는 신
고불총림 백양사	<p>백양사의 사천왕문은 단위 경관의 결정점에 위치한 실질적 문의 역할 즉 입구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위를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불총림 백양사 라고 적혀있죠?</p> <p>여기에서 총림이란 말은 아무절이나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p> <p>총림이 되기위해서는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 염불을 공부하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연불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전문교육기관인 율원 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 총림이 들어가는 절로는 조계총림 송광사 , 해인총림 해인사, 영축총림 통도사, 그리고 이곳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서있는 문밖은 천하 문으로 들어서면 천상이 되는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때요? 천상에 있는 기분이 드시나요?</p> <p>무섭기만 하죠? 이곳에 있는 네명의 신은 사천왕입니다.</p> <p>인간의 선악을 관찰하고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불법을 수호합니다.</p> <p>삼지창과 보탑 - 광목천왕            -- 화와노여움을 상징 . 가을 . 서쪽</p> <p>비파 - 다문천왕            -- 즐거움을 관리 . 겨울 . 북쪽</p> <p>용과 여의주 - 증장천왕            -- 사랑을 관리 . 여름 . 남쪽</p> <p>보검 - 지국천왕            -- 기쁨을 관리 . 봄 . 동쪽</p> <p>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천왕이 사찰내로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정도의 악귀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도 충분히 무찌르겠죠 ?</p> <p>이분들은 아마도 힘들게 수미산 까지 가려는 구도자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p>
8. 범종각	<p><b>사물에 대하여</b></p> <p>이곳은 여기까지 힘들게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불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하늘의 주악을 연주합니다.</p> <p>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표현하면 불경이 되고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 하면 불상이 되고 부처의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만다라가 되고 부처의 음성은 ? 네 바로 범종이죠..</p> <p>이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소리입니다.이 음통의 역할은 소리를 멀리나가게 하고 잡소리 잡음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용이보이지죠?</p> <p>이용의 이름은 용뉴 또는 포뢰라고 합니다. 이포뢰는 아홉 마리의 용중에서 가장 잘 운다고 합니다. 이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고래인데 이종을 치는 당목이 고래모양으로 만들어 졌다고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원목으로 되어있죠...</p> <p>한국범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바로 이 음통입니다.</p>
범종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포피와 고래이야기</p> <p>포피라는 용은 바다에 사는 용인데 어느날 보니까 너무나도 등치큰 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알고보니 그놈은 고래였어요 그런데 그고래가 새끼를 낳고 그새끼가 크고 보니 등치가 장난이 아닌겁니다. 그래서 포피는 생각했죠 이놈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내가 살곳은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래만 보면 자기 살곳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세상하고 똑같죠? 남의 것은 욕심내고 자기것은 아껴앗길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저 포피처럼 우리내 인간들도 항상 물어대는 걸까요? 여러분은 물론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p> <p>이것은 유두라고합니다. 한곳에 몇 개씩 있죠? 9개입니다. 이것이 몇 개 있죠? 4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사생구계입니다.</p> <p>사생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태생방법을 나타내고 구계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의 세계입니다.</p> <p>이와같이 사생과 구계의 중생을 모두 부처님의 세계, 불국 정토로 인도하겠다는 깊은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니 10계인데 왜 9계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해답은 중 위에있는 용에 있습니다.</p> <p>용! 그것이 10번째를 상징하는 불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p>
법고	<p>법고는 축생중에서 땅위에 사는 짐승을 교화하기 위하여 친다고 합니다.</p> <p>법고의 재료는 암소와 수소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는 음, 양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p>
목어	<p>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있으므로 수행을 실천하는 자는 물고기 같이 자지 말고 도를 닦으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 목어라고 한답니다.</p> <p>이 목어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을 제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어가 변형되어서 뭐가 됐을까요? 네 바로 목탁입니다.</p> <p>▶ 목어이야기</p> <p>앞에서와 같이 당연히 목어도 생기게 된 유래가 있겠죠?</p> <p>옛날 어느 절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훌륭한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슬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직 한 제자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의 말씀에 따르지 않던 제자는 마침내 몹쓸병에 걸려 죽에 되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그는 죽자마자 곧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등에는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어 헤엄치기가 매우 힘들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서 등에서는 피가 흘러 그 고통은 이루 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p> <p>하루는 그 물고기 전생의 스승인 스님이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제자가 사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는 물고기가 뱃전으로 다가와 스님을 보며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p> <p>스님은 물고기가 전생에 그 못난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가없이 여겨 도력으로 등에 난 나무를 뽑아 없애고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절로 돌아온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물고기의 몸을 벗어난 제자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p> <p>“스님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 바라옵건데 저의 몸에 있던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무 막대로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운판	<p>원래 운판은 사찰의 부엌에 두어서 공양시간이 되면 찻던 겁니다.</p> <p>그리고 부엌에서는 불을 다루죠 그래서 화마를 대비하기 위해 비를 만드는 구름. 즉 운판을 부엌에 두었다가 점차 예불용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운판은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날짐승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9. 보리수 나무	<p><b>깨달음을 얻은 나무</b></p>
깨달음을 얻은 나무	<p>보리수 라는 말은 원래 인도말로 ‘깨달음을 얻다’라 는 말입니다.</p> <p>지금 이 나무의 이름은 사실 염주나무입니다. 인도의 보리수나무는 30m정도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p> <p>그럼 우리나라의 보리수나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p> <p>네 일명 파리똥나무죠 설마 부처님이 그 파리똥나무 아래서 득도하시지는 않으셨겠죠?</p>
10. 석가사리탑	<p><b>8층사리탑</b></p>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	<p>부도전 설명 드릴때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층인지 한번 세어볼까요?</p> <p>여러 가지 층이 나왔는데 8층이 정답입니다. 탑의 층수를 세는것은 옥개석이나 낙수면 즉 지붕돌을 세는 겁니다.</p> <p>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짝수는 음의 수라고한다면 홀수는 양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음택과 양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음택은 말그</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그는 죽자마자 곧 물고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등에는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어 헤엄치기가 매우 힘들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서 등에서는 피가 흘러 그 고통은 이루 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p> <p>하루는 그 물고기 전생의 스승인 스님이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제자가 사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는 물고기가 뱃전으로 다가와 스님을 보며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p> <p>스님은 물고기가 전생에 그 못난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가없이 여겨 도력으로 등에 난 나무를 뽑아 없애고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절로 돌아온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물고기의 몸을 벗어난 제자가 나타나 말하였습니다.</p> <p>“스님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 바라옵건데 저의 몸에 있던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무 막대로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운판	<p>원래 운판은 사찰의 부엌에 두어서 공양시간이 되면 찻던 겁니다.</p> <p>그리고 부엌에서는 불을 다루죠 그래서 화마를 대비하기 위해 비를 만드는 구름. 즉 운판을 부엌에 두었다가 점차 예불용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운판은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날짐승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p>
9. 보리수 나무	<p><b>깨달음을 얻은 나무</b></p>
깨달음을 얻은 나무	<p>보리수 라는 말은 원래 인도말로 ‘깨달음을 얻다’라 는 말입니다.</p> <p>지금 이 나무의 이름은 사실 염주나무입니다. 인도의 보리수나무는 30m정도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p> <p>그럼 우리나라의 보리수나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p> <p>네 일명 파리똥나무죠 설마 부처님이 그 파리똥나무 아래서 득도하시지는 않으셨겠죠?</p>
10. 석가사리탑	<p><b>8층사리탑</b></p>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	<p>부도전 설명 드릴때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층인지 한번 세어볼까요?</p> <p>여러 가지 층이 나왔는데 8층이 정답입니다. 탑의 층수를 세는것은 옥개석이나 낙수면 즉 지붕돌을 세는 겁니다.</p> <p>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짝수는 음의 수라고한다면 홀수는 양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음택과 양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음택은 말그</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대로 죽은자의 집이고 양택은 산자의 집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선조들은 홀수 즉 양의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곳은 짝수 즉 음의수이죠 8층이니깐요          보통 다른곳의 탑은 홀수로 되어있습니다. 이곳백양사 8층석탑은 8정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8정도라면 정견 정사유 정어 이런것들입니다. (경천사지 10층석탑은 면밀히 따지면 3층과 7층을 합한것임) 어쨌든 중요한것은 이 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동해 볼까요?</p>
11. 칠성전/진영각	불교와 토속신앙
칠성전과 진영각, 괘불석주	<p>같은 건물 안에 벽을 경계로 하여 두 개의 기능을 가진 전각이 함께 있는 것이 특이한 형태입니다.          오른쪽이 칠성전입니다. 칠성전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하여 민간신앙으로 발전하여 오던것을 불교로 흡수 하였죠          칠성은 인간의 수명과 길복을 주관한다고 하여 고대로부터 칠성전에 자손이 번창하고 장수하기를 기도하며 재난을 여의고 복덕을 비는 신앙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왼쪽은 진영각입니다. 이곳은 역대 큰스님의 영정을 모신 전각입니다. 한번 보시면 중앙에 계신분이 이곳 백양사 의 개창자인 여환선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돌기둥이 보이시죠?          이것은 괴불대입니다. 큰행사나 법회가 있을때 법당안으로 다 들어갈수는 없으니까 이곳에 부처님 사진(괘불)을 걸어놓는 겁니다.</p>
12. 극락보전	극락세계
이상향	<p>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기둥은 배흘림 기둥이고 1574년 승려 환응이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극락보전이 뭐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원하죠? 절대적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는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당연한 바람을 극락 즉 지극한 즐거움 그리고 지극한 행복으로 풀어갔습니다.          어렵나요? 그래서 쉽게 풀자면 이곳은 극락정토 왕생을 위한 수행과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여기서 잠깐! 그런데 칠성전 진영각부터 이곳까지 땅에서 이상한 것이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기와로 모아놓은 것이있죠?</p> <p>용도가 뭘까요? 빗물이 떨어지는 곳?</p> <p>불교에는 10세계가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귀중생 이란곳 이 있는데 인색함, 탐욕, 시기 그리고 질투 때문에 생겨난 중생입니다.</p> <p>아귀중생의 배는 수미산만큼 커서 항상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울 음식물을 찾아 헤매지만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해서 음식을 먹을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배속에서 불로 변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p> <p>그래서 그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목구멍에 걸리지 않는 공양물을 주고 있는데 공양을 한 뒤 씻은 곡기가 남은 물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요 지금은 부어주는 지는 몰라도 상징적인거겠죠?</p>
13. 명부전	<p><b>사후세계</b></p> <p>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십대왕을 봉안한 전각입니다.</p> <p>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장보살이 어떤분 이신지 알아봐야겠죠?</p> <p>지장보살은 수행할 때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고 서원을 세워서 항상 지옥문전에서 지옥으로 오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장이라고 이름 한 것은 수행할 때 추위에 떠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 입고있던 옷을 모두 희사하여 알몸을 가리기 위하여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몸을 가렸다고 하여 지장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p> <p>그리고 지장보살 주위에 10분의 명부시왕이 있습니다.</p> <p>이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 하는분이 있죠 우리가 지장보살을 마주보았을 때 우측부터 좌측으로 한분씩 세어볼까요?</p> <p>그렇게 해서 5번째분 누구죠?</p> <p>네..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염라대왕입니다.</p> <p>사람이 죽으면 이 명부시왕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p> <p>처음 7일간은 제1 진광대왕에게 눈이 지은죄를 심판받고</p> <p>두번째 7일간은 제2 초강대왕에게 귀가 지은죄를</p> <p>세번째 7일간은 제3 송제대왕에게 코가 지은 죄를</p> <p>네번째 7일간은 제4 오관대왕에게 혀가 지은 죄를</p> <p>다섯번째 7일간은 제5 염라대왕에게 몸이 지은 죄를</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여섯번째 7일간은 제6 변성대왕에게 뜻이 지은죄를 일곱번째 7일간은 제7 태산대왕에게 속마음으로 지은죄를 심판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49일간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받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생의 갈곳이 정해진답니다</p> <p>그래서 이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짓기위해 49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명부왕이 있는데 유독 염라대왕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죽은뒤에 몸이지은죄를 심판하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럼 7왕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세왕은? 혹시 지은죄의 경중과 형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49일 이후 100일간 제8 평등대왕이 100일이후 일년간은 제9 도시대왕이 1년이후에는 제10 전륜대왕이 최종적으로 명부의 형량을 가리게 됩니다 어렵나요? 쉽게말해서 나머지 3분은 지금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항소심과 상 고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되어 지옥으로 갈 경우 이 세 분에게 항소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도 항소심에서 진다면? 네 지옥에 가는거죠</p>
14. 석등	<b>중생을 비추는 빛</b>
중생을 비추는 빛	<p>석등의 기둥은 각이 몇각으로 되어있을까요? 팔정도를 상징하기 위해 팔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빛이 나가는 창이있는데 창이 몇 개죠? 네 4개죠 이것도 당연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깐 제가 물어 본거겠죠? 창이 사방 향은 사성제 즉 고.집.멸.도 의 법문을 의미하기도하고 모든 중생계를 비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지면 어둠을 밝히기 위한 용도이고 신앙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성불하는 것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중생계를 두루 비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p>
15. 대웅전	<b>백학봉과 어우러진 대웅전</b>
대웅전 이야기	<p>대웅전 뒤에 보이는 백학봉과 대웅전의 모습이 거대하게 느껴지실겁니다. 대웅이란 부처님을 큰 영웅이라고 해서 대웅전 이라고 합니다. 대웅전은 반야용선의 선실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수미산까지 올라온 이유는 피안의 세계로 가기위해서 였죠 바 로 그 반야용선이 대웅전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대웅보전 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부처님 양쪽에 어떤분이 계신가에 따라 이름이 틀려지니 같은 의미이긴 하겠죠?                      그리고 대웅전 제일위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특별한걸 찾으셨나요?                      네 기와가 파란색이 하나가 있죠?                      이제 찾으셨어요? 네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사는곳이 청와대죠?                      그만큼 청기와는 아주 큰인물이나 대단한 건물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올리는 것이 아니죠?                      이곳 백양사 대웅전도 대단한 곳이어서 있는겁니다.                      물론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파란색을 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p>
16. 마무리	<b>해설정리</b>
끝인사 및 정리	<p>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사찰해설이 끝났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천상의세계에 있는듯 합니까?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작은것 하나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있었죠?                      이처럼 사찰 즉 우리의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공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사찰에 가실때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p> <p>사찰을 둘러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찰을 나서면 이는 사찰을 온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관광지를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여기에서 잘은 못했어도 조금이라도 들으셨으니깐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찰 너머에 있는 불교의 진리. 나아가 삶의 진리를 느끼게 된다면 사찰은 현재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이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볼수있는 눈을 가지도록 하는 지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p> <p>지루한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6. 교통편 안내

### • 승용차

- 서울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고창IC - 백양사방면 (국지도15호선) - 백양매표소 진입 (약 4시간 소요)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백양사IC - 백양사방면 - 백양매표소 진입 (약 4시간 소요)
- 대전 : 대전 - 호남고속도로 - 백양사IC - 백양사방면 - 백양매표소 진입 (약 2시간 소요)
- 대구 : 대구 - 88고속도로 - 담양IC - 백양사방면 (국지도15호선) - 백양매표소 진입 (약 4시간 소요)
- 부산 : 부산 - 남해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백양사IC - 백양사방면 - 백양매표소 진입 (약 4시간 30분 소요)
- 광주 : 광주 - 호남고속도로 - 백양사IC - 백양사방면 - 백양매표소 진입 (약 1시간 소요)
- 비고 : 비수기 평일·주말 : 광주 ~ 백양매표소 구간 1시간 소요
- 성수기(10월20일경부터 ~ 11월20일경까지) 상습 정체 구간 :  
- 백양사IC~백양매표소 (주말 10~16시의 경우 약 2~4시간 소요)

### • 기 차

- 서울 : 용산역 - 백양사역 (약 4시간 소요)
- 대전 : 서대전역 - 백양사역 (약 2시간 소요)
- 광주 : 광주역 - 백양사역 (약 1시간 소요)

### • 고속버스/시외버스

- 서울 : 서울 - 장성사거리 (약 3시간 소요)
- 대구 : 동대구, 서대구터미널 - 광주 (약 3시간 30분)
- 광주 : 광주광천터미널 - 백양사 (약 1시간 소요)

### • 항 공

- 서울김포공항 - 광주공항 (50분 소요)
- 제주제주공항 - 광주공항 (45분 소요)

※ 버스시간표

[ 센트럴 → 광주 ]		[ 동서울 → 광주 ]		[ 광천터미널 → 동서울 ]	
출발시간		출발시간		출발시간	
0:30		5:40		5:40	13:30
1:00		6:20		6:20	14:00
1:30		7:00		7:00	14:30
2:00		7:30		7:30	15:00
5:30		8:00		8:00	15:30
5:35		8:30		8:30	16:00
5:40		9:00		9:00	16:30
5:45		9:30		9:30	17:00
5:50		10:00		10:00	17:40
5:55		10:30		10:30	18:20
6:00		11:00		11:00	19:00
				11:20	19:40
				11:35	21:05
				12:00	22:35
				12:30	23:55
				13:00	
<b>[ 센트럴 → 광주 ]</b>					
<b>구 분</b>		<b>우 등</b>		<b>일 반</b>	
일반요금		22,400 원		15,100 원	
아동요금		일반요금의 50%			
소요시간		3시간 40분			
<b>[ 동서울 → 광주 ]</b>					
<b>구 분</b>		<b>우 등</b>		<b>일 반</b>	
일반요금		25,100 원		16,900 원	
아동요금		일반요금의 50%			
소요시간		3시간 55분			
<b>[ 동서울 → 광주 ]</b>					
<b>구 분</b>		<b>일반고속</b>		<b>우등고속</b>	
일반요금		16,900원		25,100원	
아동요금		일반요금의 50%			
소요시간					

[ 광주 → 백양사 ]	[ 백양사 → 광주 ]	[ 백양사 → 사거리 ]	[ 백양사 → 장성 ]
출발시간	출발시간	출발시간	
6:20	7:05	8:35	8:35
7:15	7:50	9:30	9:35
8:20	9:00	10:30	10:35
9:30	10:15	11:30	11:35
10:40	11:15	12:30	12:35
10:40	12:20	13:30	13:35
11:50	13:50	14:30	14:30
13:10	14:55	15:30	15:35
14:10	16:05	16:30	16:35
15:15	17:05	17:20	17:20
16:30	18:05		18:35
17:30	19:10		19:20
18:30	19:50		
19:50			

-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 :
- \* 광주 광천터미널      062-360-8114
- :
- \* 백양사 정류소          061-392-7881
- :
- \* 장성 버스정류장      061-393-2660
- :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544-7788, 1588-7788
- :

## Ⅷ 주변관광지

# 표

X 자주 받는 문의



